



육계자조금



▲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우수상(소풍/이창우) 수상작

자조금소식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성공적 개최

육계소식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외고 신토불이(身土不二) 닭고기가 최고!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2011 10 volume 24



전국 양계인들의 뜻깊은 화합의 장 마련

‘2011 전국 양계인대회’, 양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전국 양계인들의 화합의 장을 위해 마련된 ‘2011 전국 양계인대회’가 지난 9월 22일 대구 엑스코(EXSCO)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가 주관하고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와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내 양계산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양계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또한 3년만에 개최된 만큼 오랜만에 전국의 양계농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고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양계산업 비전선포식을 겸한 이번 양계인대회에서는 농가와 계열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계열화사업 확립, 계란유통구조 개선, 양계농가 수익성 향상, 농가의 적극적인 육계자조금 참여 등의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4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행사에 참석한 양계농가들은 의무자조금 거출에 적극 동참하고, 철저한 차단방역활동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난계대질병 청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현재 양계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 양계산업이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양계인대회에는 이양호 농림수산물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각 축종별 축산단체장, 대한양계협회 임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2천여명의 양계인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그동안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온 농가와 업체들에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상과 대한양계협회장상, 농촌진흥청장상 등을 수여했다. 이밖에도 ‘7가지 성공키워드’라는 주제로 박해완 벤처농업대학교수의 강의와 ‘강소농(強小農)’에 대해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



2 전국양계인대회



3 전국양계인대회



4



5



6



7



8



9



10

- 1 2011년 전국양계인대회에는 1천여명의 양계인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 2 대회를 하는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 3 기념 축사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이양호 실장
- 4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풍물패의 사물놀이 공연
- 5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수상자들
- 6 대한양계협회장상을 받은 수상자들
- 7 이 날 양계인 대회에서는 양계산업 비전선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 8 강소농'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 9 농촌진흥청장상을 받은 수상자들
- 10 '7가지 성공의 키워드'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벤처농업대학 박해원 교수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성공적 개최

역대 최대 규모, 행사기간동안 총 8만명 다녀가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3박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주관으로 열린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지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대구광역시 엑스코(EXSCO)에서 개최되어 행사기간동안 총 8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 되었다.

'친환경 축산, 미래의 녹색 희망'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구 축산박람회는 국내외 각종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12개국 243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박람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대회를 주관한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축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축산인들도 안전축산물 생산, 친환경 축산에 더욱 전념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외 축산기자재, 사료, 동물 약품 등의 다양한 제품 등이 전시되었고 특히, 축산폐수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폐사축 처리 등 친환경 축산기자재 전시장이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또한 박람회 기간에는 축산 관련 세미나 개최, 신기술 홍보관·포토존 운영, 축산물 할인판매와 시식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마련됐다. 🍎



- ❶ 대회를 주관한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가운데)을 비롯하여 5개 축산단체장, 농림수산식품부 오정규 제2차관 등이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식을 거행하고 있다
- ❷ 개회사를 하고 있는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 ❸ 대한양계협회 황일수 상무로부터 대구 국제축산박람회의 개요를 설명 듣고 있는 참석 내빈들
- ❹ 전시장을 돌며 이준동 회장이 농림수산식품부 오정규 제2차관을 비롯한 내빈들에게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❺ 농림수산식품부 오정규 제2차관, 축산 5개 단체장들과 행사 성공을 기원하며 '대한민국 축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❻ 2층에서 바라본 박람회 전시관 전경
- ❼ 내빈들이 박람회에 전시된 양계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하고 있다

“3저1고의 닭고기 요리 드시고 건강해 지세요!”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대구 축산박람회서 무료 시식회 가져

“3저1고의 닭고기 요리 드시고 건강해 지세요!”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구 엑스코(EXSCO)에서 열린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닭고기 요리 무료 시식회를 진행하는 등 국산 닭고기를 알리는데 적극 앞장섰다.

행사기간 동안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담백하고 지방이 적어 다이어트식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는 닭가슴살을 이용한 닭고기 샌드위치를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고 ‘황금닭을 잡아라’ 게임을 통해서도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과 효능을 알아보는 한편, 게임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였다.

- ❶ 닭고기 홍보 ‘황금닭을 잡아라’ 게임장에 모여든 관람객들.
- ❷ ‘황금닭’ 잡기에 여념이 없는 관람객.
- ❸ 박람회에 설치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부스.
- ❹ 닭가슴살을 이용한 닭고기 샌드위치를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다.

무료 시식회와 손쉬운 게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산 닭고기 소비홍보 활동을 펼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의 홍보부스는 박람회 기간동안 관람객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응도를 보이며 성공적인 소비촉진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



국산 닭고기 우수성, 이제 지하철에서 확인하세요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지하철 광고 통해 국산 닭고기 우수성 홍보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 이제 지하철에서 확인하세요’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9월 5일부터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육계자조금 지하철 광고를 게재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산 닭고기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내년 9월 4일까지 1년여에 걸쳐 진행되는 육계자조금 지하철 광고는 서울지하철 1, 2, 3, 4, 7호선의 총 다섯 개 노선에 각 노선마다 100개씩, 총 500개씩 부착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산 닭고기인증제도 및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 캠페인 형태로 제작된 이번 광고는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 독도문제를 비유적으로 풍자했다. 아울러 수입산과 차별되는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열거하고, 고단백·저칼로리 식품인 닭고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효능을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 진행된 국산 닭고기 인증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함께 실어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던 닭고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이번 육계자조금 지하철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국산 닭고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입산과의 차별성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육계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수산물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지하철 광고는 내용의 참신성과 더불어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 및 국산 닭고기 인증사업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광고를 접한 시민들도 ‘독도 문제를 광고에 접목시킨 점이 매우 참신하다’,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국산 닭고기 인증업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등등 놀라움과 함께 광고에 대해 높은 점수를 매겨 주었다.

따라서 앞으로 1년간 진행될 육계자조금 지하철 광고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과 국산 닭고기 인증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 줄 수 있는 훌륭한 홍보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지하철 광고에 그치지 않고 무료 시식회 등 국산 닭고기와 관련한 다양한 소비홍보 사업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과 더욱 친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

2011 육계자조금 「양계사진 공모전」 시상식

■ 일시 : 2011년 10월 4일 ■ 주최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1회 양계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는 김택수씨의 '토종닭' 으로 선정되었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10월 4일 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양계사진 공모전 수상자들을 위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양계사진 공모전은 친근한 양계사진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닭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번 양계사진 공모전은 처음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총 65명의 참가자들이 192점의 작품을 출품해 사진 공모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2차에 걸쳐 진행된 심사를 통해 대상에는 김택수씨의 '토종닭' 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에는 주기봉씨의 '봄나들이 종종종' 과 이창우씨의 '소풍' 이 수상하였다. 장려상에서는 주명기씨의 '토종닭의 하루' 외에 총 5작품, 입선에는 이치용씨의 '가족2' 외에 총 20점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총 28점의 수상작들은 앞으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의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을 수상한 김택수씨를 비롯하여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 8명이 함께 자리해 시상식을 더욱 빛내주었다. 관리위원회에서는 대상에게 상금 150만원과 상장, 우수상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 장려상에게는 상금 50만원과 상장을 각각 수여하였다. 입선에게는 상금 10만원과 상장을 전달하였다.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를 대표해 시상을 맡은 이홍재 위원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건네며 "친근한 닭고기 사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린 이번 양계사진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해마다 열린 예정인 양계사진 공모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정 23호(9월호) 3면 '소풍' 작품이 장려상이 아닌 우수상으로, 입상이었던 '고향'을 장려상으로 바로 잡습니다.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농식품부,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 해제 요청

우리나라가 8개월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확보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성공적으로 박멸되었고 추가발생이 없는 등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의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중앙역학조사위원회와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난 9월 4일 AI 청정국의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생 지역이었던 경기도 연천의 매몰처분 등 방역조치가 완료된 날인 5월 23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었고 AI 상시예찰(임상·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3개월에 걸쳐 전국에 있는 가금류 사육농장, 재래시장, 야생조류 포획 및 분변 등에 대한 AI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AI 발생으로 살처분 등 방역 완료 후 3개월 이상 AI가 발생하지 않고 임상·혈청검사 등 전국적 예찰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가 회복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였음을 OIE에 통보하고 그동안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는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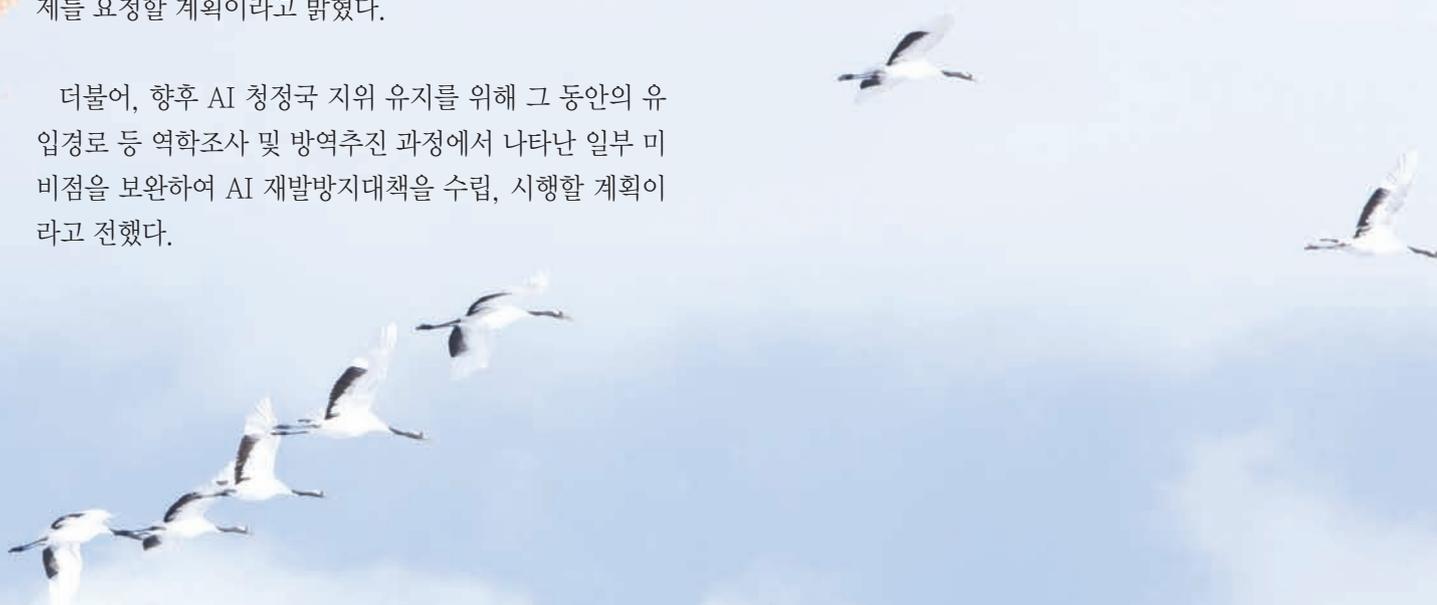
더불어, 향후 AI 청정국 지위 유지를 위해 그 동안의 유입경로 등 역학조사 및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AI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생조류와 농장과의 완전 격리 및 농장 출입자 소독 관리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다.”

특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후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철새가 이동하는 봄·가을 등 취약·위험시기에 신속한 AI 위기정보 발령을 통해 농가의 차단방역 의식을 고취시키고, 야생조류 AI 검사건수를 올해 2천 건에서 내년 2천700건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이밖에도, 금번 고병원성 AI 확산의 또다른 요인으로 추정되는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하여는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하여 급여 전 남은 음식물의 열처리 준수여부 합동점검 실시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AI(H5N1형)에 대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한국과 일본 등의 재유행 가능성을 경고한 것과 관련, 민간합동 중앙역학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 야생조류와 농장과의 완전 격리 및 농장 출입자 소독 관리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다. 🍗



위장관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관리방안 II



김동욱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초기 병아리 위장관 발달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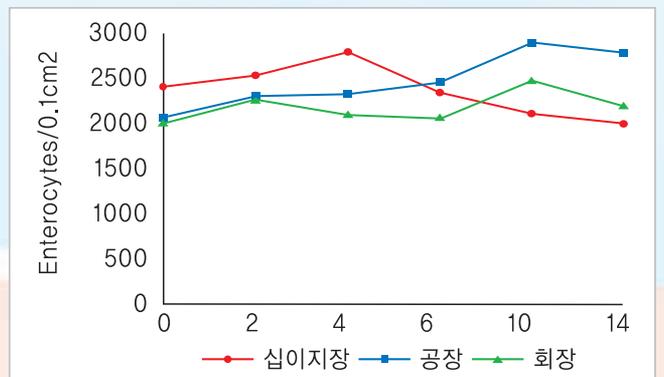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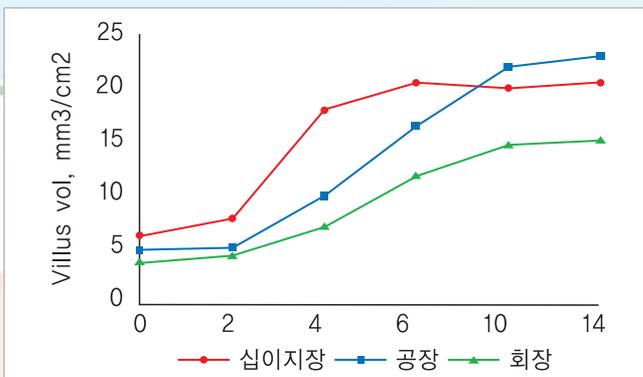
오늘날 육종, 사료, 사양기술 발달로 1일령에 40~50g 인 병아리가 35일에는 30~50배의 체중에 이른다. 이러한 닭의 유전 능력을 온전히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위장관의 정상적인 발달과 안정화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부화 직후 병아리의 위장관은 해부학적으로 미성숙된 형태이며 기능적으로 불완전하다. 부화 후 선위, 근위, 소장 등의 위장관은 다른 기관 및 조직에 비해 급속도로 중량이 증가하는 한편, 형태적, 생리적으로 급속하게 발달한다. 이들의 성장은 부화 후 4~6일에 최대가 되고 약 10일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닭의 경우 3~8일령 체중 대비 상대적 중량이 최대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1>은 부화 후 병아리 소장의 발달을 나타낸 것으로 소장의 용모 및 장세포가 2~10일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는 위장관 내 소화효소 분비양상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병아리는 부화 기간동안 난황낭에서 영양소를 공

급받았기 때문에 부화 후 영양소 공급원이 사료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소화효소 분비 양상이 급변하게 된다. 이처럼 부화 초기 위장관 발달 및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영양소 공급원 역시 난황낭에서 사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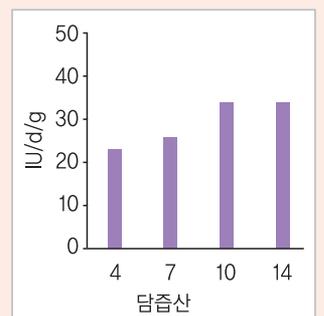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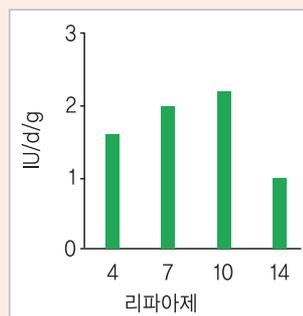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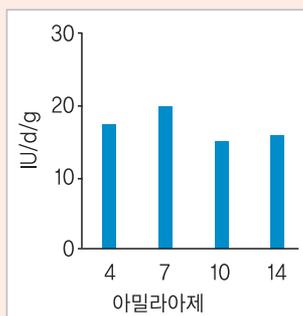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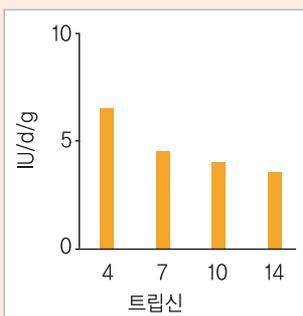
사료 조기 급이(Early feeding)를 통한 병아리의 위장관 발달 증진

병아리의 부화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시점에서 나타나는데 병아리를 대량 생산하는 부화장의 경우, 병아리 최대 부화시점까지 부화를 지속하고 백신, 선별, 운송 등의 작업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경우 병아리가 농장에 도착하여 사료 및 음수를 섭취하는 시간은 최대 2일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사료 및 음수 섭취의 지연은 증체량, 육성률, 위장관 및 면역계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료 및 음수에 대한 조기 접

<그림 1> 부화 후 병아리 소장 발달 양상 (Noy and Sklan, 1997)



<그림 2> 부화 후 병아리 소화효소 분비량 (Noy and Sklan, 1997)



근시 증체량, 사료요구율 등 육계 생산성이 향상되고, 복강 내 유입된 난황낭의 이용효율이 높아지는 한편 난황낭 주요 단백질 중 모체이행항체가 아미노산 및 단백질 급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수동면역에 사용되어 병아리 초기 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현재 여러 농가에서는 관례적으로 병아리 입주시 음수는 바로 급여해주어도 사료의 경우 3~4시간 가량 지난 후 급여해주고 있다. 물론, 부화 초기 위장관은 장의 길이 증가, 용모 길이 및 밀도 증가 등의 형태적 변화와 취장, 소화효소 분비 증가 등의 생리적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절식시에도 난황낭의 영양소를 이용하여 위장관이 우선적으로 발달한다. 그러나 사료조기 접근시 위장관 발달이 촉진되어 생산성 향상, 사료이용률 증진 등을 유도할 수 있으

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 1>은 사료 및 음수 섭취 지연이 병아리 소화기관의 중량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 급이가 지연될수록 소화기관의 발달 역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4>는 사료급이 지연시와 사료 조기 급이시의 육계 체중, 난황낭 이용률 및 소장 발달의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사료 조기 급이시 체중 증가, 난황낭 이용률 향상, 소장 발달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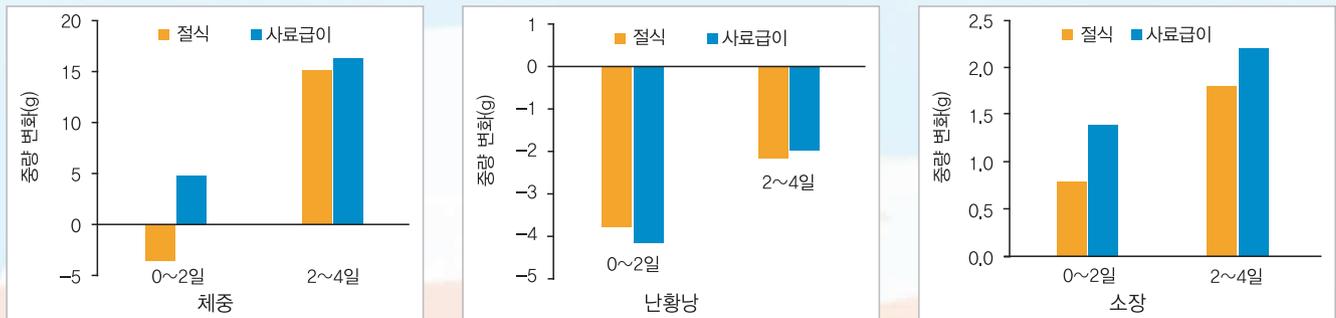
미국, 유럽 등 양계 선진국에서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동물복지 차원에서 병아리의 사료 조기 급이를 위한 여러 시설 및 시스템이 개발, 적용되고 있다. 병아리의 사료 조기 접근을 위해 개발된 병아리 운송 시설로서 운송 트레이 내부에는 사료급이통이 있고 운송 차량 측면에는 점등시설이 설치되어 병아리가 원활하게 사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부화장 및 사육시스템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시설 개선이나 시스템 조정을 통해 부화, 백신, 선별, 계류, 운송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 및 방안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농가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병아리 품질 부분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호에서는 닭의 위장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료적 요인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다. 🍌 <다음호에 계속>

<표 1> 사료 및 음수 섭취 지연이 병아리 기관 발달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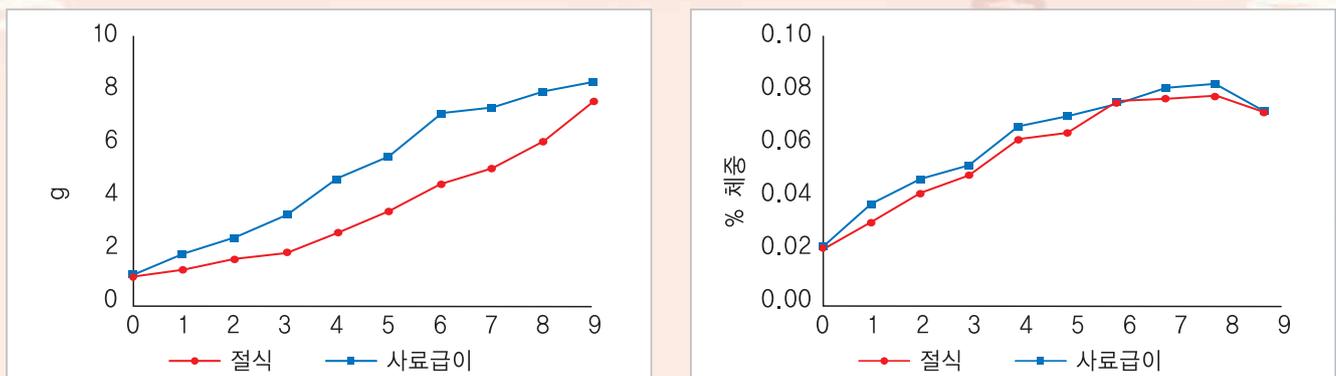
	절식 시간		
	0 시간	24 times	48 times
	----- g/100g 체중 -----		
간	3.76	3.71	3.24
위(선위+근위)	7.91	8.03	7.80
취장	0.38	0.36	0.20
십이지장	2.94	2.89	2.78
공장	2.82	2.85	2.39
회장	2.12	2.07	1.65

※ 자료출처 : Panda 등, 2006

<그림 3> 사료 조기 급이에 따른 체중, 난황낭, 소장 중량 변화 비교 (Sklan, 2001)



<그림 4> 사료 조기 급이에 따른 소장 중량 변화 비교 (Sklan, 2001)



신토불이(身土不二) 닭고기가 최고!

닭고기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박영순

포커스신문 취재총괄 부국장

‘웬 뜬금없는 소리’라고 고개를 가우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양적으로만 봐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2010년 국내 육계시장의 규모는 2조2천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액수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만큼이나 닭고기를 자주 그리고 많이 먹는다. 지난해 국내 커피시장의 규모는 2조6천억원에 달했다. 이 중 커피믹스가 40%인 1조490억원을 차지했는데, 믹스커피보다 닭고기를 훨씬 더 많이 즐겼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닭고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겠다.

육계(肉鷄)가 이처럼 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국내 닭산업이 계란생산 위주에서 닭고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국내 산란계 사육농가는 1990년 3천932호에서 2010년에는 1천535호로 2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육계 사육농가는 2009년 1천562호에서 작년에는 1천763호로 늘어 상승세로 반전했다. 육계 사육마릿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 1990년 2천693만5천마리에서 2010년에는 7천787만1천마리로 20년새 3배 가까이로 불어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런 흐름은 닭고기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것이다. 1인당 연간 계란소비량이 2005년 220개에서 2009년 238개로 4년새 8.2% 늘어난 데 비해,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7.5kg에서 9.6kg으로 28% 증가했다. 닭고기 소비 증가폭이 계란보다 3.4배나 앞지른 것이다.

한 알이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다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양덩어리’로 추앙받던 계란이 그 자리를 닭고기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닭고기 전성시대와 관련해 자연스레 질적인 이야기로 넘어왔다. 가치투 자전력가인 스콧 필립스는 단백질, 그중에서도 웰빙바람을 타고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닭고기를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트렌드’의 하나로 꼽았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단백질의 섭취가 늘어난다. 과거에 소고기는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었지만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됐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닭고기를 많이 먹는다.

고기 중에서도 왜 닭고기일까?

닭고기 육수를 바탕으로 만든 코미디언 이경규의 ‘꼬꼬면’이 하얀국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맵시를 고민하는 여성이나 근육을 키우려는 남성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닭가슴살이다. 화이트 푸드(White Food)의 대명사가 된 닭고기는 특히 현대인들에겐 매우 요긴한 식품이다.

닭고기는 쇠고기보다 단백질이 많다. 100g 중 20.7g이 단백질인 반면 지방질은 4.8g에 그친다. 비타민 B₂를 비롯해 칼슘, 인, 비타민 A 등이 풍부하다. 닭가슴살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 얼짱과 몸짱들이 즐겨 찾는다. 운동량이 많은 닭다리는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한 질감이 우수하다. 닭고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에서 맛을 내는 성분인 글루탐산(酸)이 많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아미노산과 핵산맛 성분도 들어 있어 구수하면서도 산뜻한 맛을 낸다. 하나 더 말하자면, 닭날개에는 피부와 노화방지에 좋은 비타민 A가 풍부하다.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피운다’는 옛 얘기는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입산 닭고기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약 40만 톤의 닭고기를 생산했지만, 자급률 85%에 그쳐 나머지는 수입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중국산 등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닭고기의 수준과 위험성은 언론에 자주 회자되기 때문에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성 싶다. 미국산 닭고기도 양계장에서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 닭모이에 비소를 첨가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을 정도이니….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대가 기업과 함께 ‘서울대표(標)’ 안전한 닭고기를 2012년부터 생산하겠다고 나섰다. 수입산 탓에 닭고기에 대한 불신이 일자 프리미엄(무항생제) 닭고기를 생산하는 국내 농가가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토불이(身土不二)는 마땅히 닭고기에도 적용된다. 오랜 시간 바다 건너 산너머 오는 닭고기보다 제 땅에서 나는 닭고기가 맛도 좋고 몸에도 좋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



“ 신토불이(身土不二)는 마땅히 닭고기에도 적용된다. 오랜 시간 바다 건너 산너머 오는 닭고기보다 제 땅에서 나는 닭고기가 맛도 좋고 몸에도 좋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 ”

개인 육계자조금 납입 현황

(단위 : 원)

이름	농장명	금액(누계)	주소
백성순	성경농장	183,510(607,830)	전북 고창군 해리면
최영규	메바위농장	119,100(356,100)	경기 화성시 장덕동
이춘수	이춘수농장	151,275(151,27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종원		360,000(360,000)	
임금택	임금택농장	123,000(504,210)	충북 괴산군 장연면

이름	농장명	금액(누계)	주소
남상길	법곳농장	150,000(900,000)	경기 고양시 일산구
김영세		123,570(123,570)	
노철환		150,000(300,000)	
유동진		120,000(120,000)	
서정준	한신부화장	120,000(120,000)	경남 밀양시 무안면

계열사 육계자조금 납입 현황

(단위 : 원)

도계장	이름	금액(누계)	주소
체리부	곽종철	63,480(63,480)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재노1농장	77,550(77,550)	충남 서천군 문산면
	구재노2농장	44,070(44,070)	충남 서천군 시초면
	권오득	107,190(226,350)	충남 홍성군 옥하면
	권옥희	163,350(354,930)	경북 상주시 도남동
	권혁부	45,000(195,960)	경북 상주시 사벌면
	길일섭	113,280(250,110)	충남 논산시 성동면
	김건수	150,210(284,280)	경북 상주시 낙동면
	김경선	128,010(228,210)	전북 정읍시 소성면
	김미자1농장	79,740(79,740)	충북 충주시 목행동
	김병협	200,460(652,320)	전남 장성군 진원면
	김상진	120,840(120,840)	경북 안동시 일직면
	김신호	80,910(80,910)	충남 부여군 남면
	김영기	119,160(245,160)	경북 상주시 낙동면
	김영돈	59,220(59,220)	충북 충주시 주덕읍
	김영선	82,800(272,940)	전북 고창군 아산면
	김오식	132,390(603,060)	충남 부여군 초촌면
	김용수	101,970(176,700)	전북 부안군 줄포면
	김재광	174,030(349,110)	경기 여주군 강천면
	7월	김필례	133,080(264,900)
나승룡		106,440(224,130)	경기 여주군 북내면
나완규		72,330(72,330)	경북 김천시 개령면
맹주문		112,530(230,310)	경기 양평군 양동면
문창열		119,130(260,490)	경기 용인시 처인구
문준모		130,560(130,560)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박노수		109,260(109,260)	충남 보령시 청소면
박선자		203,952(203,952)	전남 영광군 염산면
박수만		182,388(585,138)	전북 산청군 단성면
박원호		173,280(173,280)	전북 완주군 봉동읍
박입수		170,130(356,610)	충남 서산시 부석면
박정식		130,410(380,130)	경북 상주시 공성면
박정희		138,120(280,440)	충남 서산시 고북면
반개문		166,890(479,652)	전남 영광군 군서면
백옥희		72,720(156,210)	충남 홍성군 은하면
서정욱		101,970(101,970)	경북 안동시 일직면
서춘복		54,000(199,800)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손동문		95,790(207,600)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손현중		108,660(108,660)	충남 당진군 고대면
신성례		217,860(553,320)	충남 논산시 상월면
신영철	85,650(189,390)	충남 당진군 고대면	
신은옥	245,070(245,070)	경북 의성군 단밀면	
신인수	116,310(269,280)	충남 서산시 부석면	
안상기	87,720(231,480)	충북 충주시 양성면	
안일만	177,060(258,300)	충남 부여군 충화면	
안재숙	64,710(64,710)	충남 서산시 부석면	
양삼순	125,550(376,170)	충북 보은군 탄부면	
연규호	80,160(80,160)	충북 음성군 음성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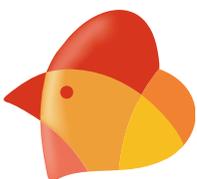
도계장	이름	금액(누계)	주소
체리부	오종성	60,840(101,700)	충남 서산시 부석면
	유명곤	137,976(288,756)	충남 서산시 해미면
	유성종	132,240(311,970)	충남 청양군 남양면
	유영곤	72,000(72,000)	충남 서산시 운산면
	유영진	208,056(406,566)	충남 청양군 청남면
	유영찬	184,650(393,780)	충남 청양군 청남면
	유영태	216,000(216,000)	충남 청양군 대치면
	윤훈섭	108,900(108,900)	충남 태안군 안면읍
	윤태용	122,370(237,960)	전북 남원시 주천면
	윤태용	115,590(237,960)	전북 남원시 주천면
	이교완	32,280(66,720)	충남 부여군 내산면
	이기환	131,160(264,36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대식	96,420(203,280)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이동용	181,890(600,630)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이만구	141,900(453,150)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이문섭	106,140(106,140)	충남 당진군 순성면
	이민호	72,630(72,630)	충남 당진군 고대면
	이득	99,930(99,930)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이상석	77,160(168,090)	충남 서천군 서면
	이성연	72,120(72,120)	충남 당진군 신평면
7월	이순복1농장	109,110(109,110)	충북 충주시 금가면
	이용균	273,810(558,360)	충북 괴산군 연풍면
	이유순	99,720(315,33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재형	138,780(437,790)	경기 여주군 흥천면
	이재환	70,350(183,450)	경북 상주시 낙동면
	이창환	148,080(148,080)	전남 영광군 군서면
	이학로	108,600(247,830)	충남 서산시 부석면
	이현호	89,520(89,520)	전북 부안군 줄포면
	임운채	200,940(668,490)	전북 고창군 아산면
	임춘자	180,480(365,100)	전북 정읍시 입암면
	장금일	45,000(45,000)	전남 함평군 손불면
	장수봉	230,010(230,010)	전북 고창군 고수면
	정경화	101,040(101,040)	경기 여주군 감천면
	정길영	87,030(175,890)	충남 예산군 대슬면
	정덕영	58,140(323,430)	충남 예산군 오가면
	정득영	175,080(175,080)	전남 함평군 함평읍
	정순님	217,440(217,440)	전남 함평군 대동면
	정연홍	178,440(178,440)	충남 서산시 팔봉면
	정영환	106,740(224,460)	충남 홍성군 은하면
	정일순	54,000(54,000)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정환	88,560(192,210)	충남 서산시 대신읍	
정환용	174,210(367,950)	충남 청양군 장평면	
차영호	65,160(127,650)	경북 상주시 사벌면	
채홍현	84,600(165,870)	경북 문경시 농암면	
천병진	156,330(226,530)	충남 서산시 팔봉면	
최기수	88,650(262,590)	강원 홍천군 서면	
최원술	155,250(316,380)	경기 안성시 중리동	

도계장	이름	금액(누계)	주소
체리 부로 7월	한경택	147,150(398,910)	경기 안성시 보개면
	허상근	169,560(342,180)	경남 합천군 가회면
	호종삼	102,210(217,560)	충남 당진군 면천면
	황승용	79,200(180,960)	충남 당진군 석문면
	황유동	101,340(457,470)	충남 홍성군 광천읍
9월 10월 11월 12월 7월	조병기	90,423(257,628)	충북 괴산군 문광면
	한종명	128,271(251,949)	충북 음성군 맹동면
	유승목	96,954(292,068)	충북 음성군 소이면
	오정길	121,428(2,762,871)	경북 영천시 매산동
	박제면	134,292(392,280)	충북 음성군 삼성면
	김의걸	179,703(179,70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오정길	120,033(2,762,871)	경북 영천시 매산동
	최영규	67,269(208,659)	충북 괴산군 괴산읍
	김의선	87,687(283,005)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정길	151,998(2,762,871)	경북 영천시 매산동
	신효정	74,049(475,977)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조이중	30,327(30,327)	경기 평택시 고덕면
	황봉서	102,225(238,380)	충남 연기군 소정면
	유용식	17,283(118,011)	충남 서산시 인지면
	창원	32,037(87,456)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나주	23,214(23,214)	전남 나주시 운곡동	
대구	113,526(376,893)	대구 달서구 대천동	
영천	40,287(242,643)	경북 영천시 문외동	
오해진	35,823(58,497)	충북 청원군 가덕면	
매산 C & F 8월	오상근	162,270(880,770)	전북 완주군 화산면
	유계현	123,150(565,563)	충남 당진군 고대면
	이남수	68,550(368,610)	경기 용인시 처인구
	권영학	79,650(270,780)	충남 부여군 규암면
	구충모	117,810(484,170)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이자	87,900(242,280)	충남 당진군 고대면
	육광언	43,500(179,58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이승재	75,900(144,600)	충남 당진군 송악면
디엠 푸드 7월	이정주	100,500(315,150)	충남 당진군 신평면
	신현철	49,380(158,580)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이민성	132,270(278,580)	충남 공주시 태봉동
	김금화	122,250(122,250)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박현경	24,000(24,000)	경기 양평군 진동면
	이동섭	100,500(100,500)	충남 연기군 진동면
	이원규	95,400(95,400)	충북 괴산군 감물면
	정재원	155,850(155,850)	경북 문경시 호계면
키 토 랑	김병태	88,200(261,000)	경남 함안군 가야읍
	김해도	534,120(1,586,820)	경북 의성군 안평면
	주진식	60,990(113,490)	경남 함안군 산인면
	최종원	106,350(333,720)	경북 군위군 부계면
	송세남	39,900(152,166)	경북 칠곡군 기산면

도계장	이름	금액(누계)	주소
키 토 랑 에 이 스 축 산 7 월	한홍석	220,440(644,490)	경남 합천군 합천읍
	손상호	66,000(123,078)	경북 경주시 외동읍
	최희수	246,390(713,040)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이완현	60,480(120,240)	경북 영천시 청통면
	조운기	119,400(398,370)	경북 영천시 북안면
	노수중	25,680(25,680)	경남 창녕군 대합면
	손병학	171,750(614,580)	경북 군위군 소보면
	김광엽	70,140(70,140)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이왕규	71,550(151,830)	경남 합천군 아로면
	김부근	55,600(302,500)	대구 달성군 유가면
	유창민	133,920(269,700)	경남 거창군 남상면
	채종섭	87,200(276,620)	경북 영천시 고경면
	임경섭	53,550(114,390)	경북 안동시 일직면
	권유화	75,810(75,810)	경남 거제시 하청면
	장재성	217,170(627,120)	경북 칠곡군 기산면
	심봉도	140,340(483,390)	경북 군위군 군위읍
	김재윤	88,300(453,997)	경남 김해시 진례면
	이창기	57,900(57,900)	대구 달성군 유가면
	사공용갑	92,800(180,520)	경북 칠곡군 기산면
	김정만	55,100(87,800)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이제성	131,910(286,290)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이봉식	185,400(185,400)	경북 김천시 개령면
	이용춘	86,400(312,378)	경북 영천시 대창면
	유한진	114,540(114,540)	경북 청송군 부동면
	임성석	62,670(132,210)	경북 성주군 월항면
	김태석	29,500(29,500)	경북 의성군 금성면
	심석호	198,270(425,910)	경남 창녕군 대합면
	김서원	63,500(135,350)	경북 칠곡군 북삼읍
	박순도	123,300(123,300)	경남 창녕군 창녕읍
	최경수	139,470(562,845)	경남 창녕군 대지면
문종길	107,070(300,600)	경북 영천시 북안면	
노기수	129,660(490,860)	경북 군위군 소보면	
유춘수	117,000(181,200)	경남 거제시 사등면	
노극수	168,150(641,430)	경북 군위군 소보면	
이옥자	179,790(721,020)	경남 창녕군 이방면	
김철해	70,350(70,350)	경북 안동시 서후면	
최찬구	175,290(788,370)	경남 창녕군 고암면	
오정태	205,560(644,940)	경북 포항시 북구	
서정조	157,380(157,380)	경북 칠곡군 기산면	
나태명	105,600(328,290)	경남 합천읍 초계면	
장태수	27,000(27,000)	경북 김천시 대덕면	
백성호	19,950(58,920)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설동호	63,100(247,144)	경남 창녕군 대지면	
임순기	126,700(126,700)	경북 칠곡군 석적읍	
김광수	68,500(301,792)	경북 김천시 갑문면	

자조금 납부는 육계산업의 발전에 쓰입니다.

자조금납부에 참여해주신 농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계의무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육계자조금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육계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육계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계자조금

비매품 / 제3권 제10호 통권24호 / 등록번호 서초 라00269 / 발행 2011년 10월 15일 / 발행인겸 편집인 이준동 / 발행처 (사)대한양계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5층, Tel : (02)588-7651, Fax : (02)588-7655 / 인쇄처 삼원정판사 / 편집 인포아트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Tel : (02)585-9974 Fax : (02)585-3548

육계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거출시작일 :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 육계 3원, 삼계 1.5원, 재래닭 4.5원, 육용종계 30원(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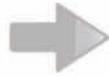
농가직접납부계좌번호 :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농가출하

육계, 삼계, 재래닭, 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도계장)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제19조제2항)



농가 직접 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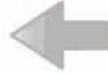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징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도계장)

